

2010. 11. 1 제250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11. 1 제250호

문화 · 디자인

1. '창조미디어 아카데미' 설립 (영국 맨체스터市)
2. 市청사 내 대형 연회장을 콘서트장으로 개방 (베를린)

산업 · 경제

3. 정품 판매시장 인증사업 실시 (영국 셰필드市)

행정 · 재정

4. 2010년 행정 만족도 조사 실시 (도쿄)

방재 · 안전

5. 자폐 청소년 대상 화재 안전교육 실시 (런던)

도시환경

6. 새로운 고품폐기물 재활용센터 설립 (뉴욕)
7.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신(新)재활용표준 제시 (런던)
8. 나무씨 채집 행사 개최 (런던)

도시교통

9. 시민 의견을 수렴해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런던)

도시계획 · 주택

10. 남부 해안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미국 보스턴市)
-

문 화 · 디 자 인

1. '창조미디어 아카데미' 설립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맨체스터市 북부에 대형 음악녹음실, 극장, 댄스 스튜디오를 갖춘 '창조미디어 아카데미'가 2012년 건립될 예정임. 이는 영국 북부지역 최대 사업으로 5억 파운드(약 8933억 원)를 투자하여 33개 중·고교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미래 학교를 위한 연합학교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 이 아카데미는 구(舊) 맨체스터 북부 고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며 2011년 1월 750개 학교·학원 시공에 들어갈 계획임. 지역 주민을 위한 창조미디어 아카데미에는 극장, 음악·드라마실, 댄스 스튜디오, 최첨단 정보통신·인터넷실, 회의실, 식당, 강의실, 카페 등이 들어섬. 4층 건물로 지어질 블랙클리 캠퍼스(허브시설)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임.

· 주말농장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임. 재생에너지와 빗물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도 갖추. 市는 좋은 학교나 학원이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 이 아카데미는 향후 지역의 평생교육과 레저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www.manchester.gov.uk/news/article/5719/creative_and_media_academies_will_take_centre_stage_with_north_manchester_community)

2. 시청사 내 대형 연회장을 콘서트장으로 개방 (베를린)

○ 베를린시는 시청사 내 대형 연회장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함. 시청사에서 가장 큰 홀인 연회장은 그동안 정치행사장으로 이용되었는데 시는 2010년 10월부터 시민을 위한 콘서트장으로 개방함. 클래식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게 됨.

- 이를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과 세계’란 제목으로 10부로 구성된 콘서트 시리즈가 공연됨.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 모차르트, 멘델스존의 작품이 연주됨. 평일은 저녁 8시, 일요일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며 입장료는 15유로(약 2만 3000원)임.

(www.berlin.de/tickets/klassische-konzerte/staatskapelle_rotes_rathaus/index.php)

택시 기사 대상 ‘친환경 운전의 날’ 행사 개최 (영국 리버풀시)

- 영국 리버풀시에서는 택시 기사가 친환경 차량을 시범 운전해보고 최신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고효율 연료에 대해 배우는 ‘친환경 운전의 날’ 행사가 개최됨. 행사 참가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탄소 차량인 ‘E7 택시’를 무료로 운전해보고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연료효율성을 점검받음.
-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택시 사업자와 기사에게 저탄소 차량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디젤 엔진에 비해 1km당 1.5~3펜스(약 27~54원)를 절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임.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택시 기사에게 저탄소 기술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도 세움.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235.asp)

산 업 · 경 제

3. 정품 판매시장 인증사업 실시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는 위조(짝퉁)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정품만 판매하는 시장을 市가 인증해주는 사업을 실시함. 市는 ‘국가 정품거래 현장’ 정신에 기초해 시장에서 위조·불법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임. 셰필드 내 모든 시장에서는 각 도·소매 점포 실내와 실외 모두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위조·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점포 문을 닫아야 함.

- 셰필드 상거래 기준연합, 셰필드 시장연합 등의 관련 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임.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판매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힘을 쓸 계획임.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함.

(www.sheffield.gov.uk/sys_upl/templates/PT_Directory/PT_Directory_details.asp?esLtr=ALL&ItemId=108344&action=Display&pgid=131107&tid=154&DirectoryKeywords=&OrderDir=DESC&OrderFld=)

행정 · 재정

4. 2010년 행정 만족도 조사 실시 (도쿄)

- 도쿄都는 행정 모니터링요원 5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도쿄 행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都는 도쿄에 계속 살고 싶은 의향, 행정 만족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 ‘도쿄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92%로 2009년보다 소폭 상승함. ‘도쿄를 매력적인 도시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4%로 이렇게 답한 제일 큰 이유는 교통망(10년 연속 1위)인 것으로 나타남. 도쿄를 매력적인 도시로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물가와 땅값이 비싸다’는 점을 꼽았고, ‘녹지와 자연환경이 열악하다’(5위)와 ‘지역 사회와 주민과의 교류가 부족하다’(6위)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54%가 ‘도쿄都 행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해 2008년(4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년도(56%)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함. 지난 1년간 가장 관심이 많았던 都 시책·사업은 도쿄 마라톤 개최(31%), 도쿄 올림픽 유치활동(30%),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22%), 안전하고 맛있는 물 프로젝트 등 수도사업(16%), 쓰키지 수산시장 이전(16%) 순으로 나타남.
 - 都가 풀어야 할 과제로 2009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치안대책(40%)이 2위로 밀려나고 고령자대책(43%)이 1위를 기록함. 다음으로 환경(33%), 방재(32%), 의료·위생대책(31%) 순임. 이밖에 저출산 문제, 소비생활 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올라감.

(www.metro.tokyo.jp/INET/CHOUSA/2010/10/60kai100.htm)

방재 · 안전

5. 자폐 청소년 대상 화재 안전교육 실시 (런던)

- 런던市 소방서 2곳에서 자폐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함.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도 키워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됨.
 - 대거넘과 에리스에 있는 소방서에서는 최근 인근 지역 자폐 청소년을 대상으로 1주일간 교육을 시행함. 소방당국은 이를 위해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함. 기존 교과과정과 다른 점으로는 교육 참가 인원 수 축소, 소방대원과 짝꿍 맺기 등이 있음.
 - 짝꿍을 맺음으로써 일대일 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지고 상호간 접촉 기회가 늘어남. 교육훈련 과정을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자폐증 관련 민간단체는 자폐 청소년이 맞춤형 소방훈련에 참여하면서 대화법과 사회성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市 소방당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 지 올해로 3년째임. ‘지역 참여 화재 안전교육’으로 불리는 교육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폭력 가해 청소년 순화 등에 초점을 맞춤. 현재는 자폐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됨.
 - 교육 참가 청소년은 동기 부여, 절도 있는 태도와 바람직한 습관, 자신감과 협동심 등을 기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지식과 실전 경험도 쌓음. 화재 진압용 사다리와 산소호흡기 사용법도 배우고 인명

구조와 살수(撒水) 훈련을 받음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힘.

(www.london-fire.gov.uk/news/NewsReleases2009_PR1453.asp)

도심 최고의 커뮤니티 농장 선정 (런던)

- 런던시는 도심의 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농장 중 우수농장을 선정해 시상함. 우범지대를 커뮤니티 농장으로 바꾼 이슬링턴과 주택단지 내 공지를 과일과 채소밭으로 조성한 해크니가 최고 농장으로 선정됨. 시는 그동안 시 전역에 있는 임대주택 단지 내에 600개 소규모 농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해옴.
- 시는 2012년까지 2012개 커뮤니티 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임대주택 단지와 도심 내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 현재 12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동참함. 50여 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내에 조성한 농장을 대상으로 우수농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green-fingered-estate-residents-win-food-growing-competition)

도 시 환 경

6. 새로운 고품폐기물 재활용센터 설립 (뉴욕)

○ 뉴욕시는 고품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심스 재활용센터(Sims Municipal Recycling Facility)를 건립함. 이는 향후 20년간 적용될 고품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른 것임. 시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힘쓸 계획임.

- 브루클린 서부에 위치한 이 재활용센터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송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비용도 줄이고 환경적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기차와 바지선을 이용해 폐기물을 운송할 수 있어 폐기물 운송용 차량 주행거리를 연간 42만km 단축함. 또한 재활용센터는 2011년까지 1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이 센터는 시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운영될 계획임.

· 재활용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트럭 약 100대와 바지선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게 됨. 센터 내에 방문객 교육센터와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옥상녹화 사업, 재생에너지 이용 등도 적극 추진함.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해왔던 시에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시는 고품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특정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고품폐기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수변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함. 이를 위해 물류·산업공간은 물론 보행거리 조성도 함께 진행함.

(www.nyc.gov/html/om/html/2010b/media/pc102510_groundbreaking.asx)

7.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신(新)재활용표준 제시 (런던)

- 런던市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최근 새로운 재활용표준인 ‘자치구·기업부문 폐기물전략’을 마련함. 이 전략의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시책이 수반될 예정임.
 - 지금까지 런던 내 자치구의 재활용률은 폐기물의 유형과 질에 관계없이 무게를 기준으로 산출해 왔으나 새로운 전략은 재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함. 예를 들어, 무게는 가벼우나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제조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알루미늄 캔도 마찬가지임. 이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질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할 예정임.
 - 새로운 재활용표준이 시행되면 매년 1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최대 9000만 파운드(약 1615억 원)의 전력요금과 2400만 파운드(약 431억 원)의 가스요금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됨. 새로운 폐기물전략은 절감한 비용으로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함.
 - 市는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2015년까지 45%, 2031년까지 60% 줄이고,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인프라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아울러 자치구가 추진하는 쓰레기 관련 정책에 새로운 재활용표준이 포함되도록 강제함.

- 새로운 재활용표준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뿐 아니라 공원과 거리, 기업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방안도 제시함. 市는 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전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맞춤형 쓰레기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www.london.gov.uk/press_releases/all?page=2)

8. 나무씨 채집 행사 개최 (런던)

- 런던市, 런던 야생동물 트러스트, 왕립 공원은 공동으로 나무씨 채집 행사를 개최함. 이 행사는 2010년 9월부터 주말을 이용해 영국 전역에서 열림. 런던에서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6회의 행사가 6개 공원에서 열림.

- 행사는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① 해당 공원 소개, ② 나무와 숲 해설, ③ 나무에서 씨를 채집하는 방법 교육과 참가자 체험, ④ 종자를 뿌리거나 보관하는 방법 교육, ⑤ 5~10년 후 나무 모습 설명 순으로 진행됨.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그리니치 공원에서는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함.

- 市는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이나 공공용지 개선사업 등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옴. 市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다양한 식목계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www.london.gov.uk/event-meeting/2010/oct/seed-gathering-season)

9. 시민 의견을 수렴해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런던)

- 런던市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선함. 2010년 12월 확대 실시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2011년 초부터 자동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市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의 62%가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납부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발표함. 아울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1일 8파운드(약 1만 4000원)인 혼잡통행료를 10파운드(약 1만 8000원)로 인상하고 정해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2파운드(약 2만 2000원)를 징수함.
 - 市는 자동납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 납부 시 1파운드(약 1800원)를 할인해줌. 저탄소 차량에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도 시행함.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혜택도 검토 중임.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심 을 중심으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2월 市 서부 지역 으로 대상이 확대됨. 크리스마스 등 주요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공공 교통수단이나 도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됨. 하지만 확대 적용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거주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확대 적용 폐지를 검토함.
 - 런던교통공사 조사 결과, 확대 적용계획 폐지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市는 도로공사 허가제 도입, 교통흐름 원활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재정 측면에서는 연간 5500만 파운드(약 987억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환경 측면에서는 대기오염 수치가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1년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市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정연료 버스와 저탄소 하이브리드 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대기질 관리대책을 시행할 계획임. 이밖에도 차종별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저배출 지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www.tfl.gov.uk/roadusers/congestioncharging/17094.aspx)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7091.aspx)

‘도시디자인 주간’ 행사 개최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디자인 주간’ 행사가 환경운동가,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빌딩, 거리, 오픈 스페이스에서 2010년 10월 25일부터 5일간 개최됨. 이 행사는 존 펀터 교수의 ‘셰필드 도심부 도시 디자인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시작됨. 주제발표에서는 영국 주요 도시의 재생과정에서 디자인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www.sheffield.gov.uk)

도시계획·주택

10. 남부 해안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미국 보스턴市)



- 2010년 9월 미국 보스턴市 재개발국은 市 남부 해안지역 재개발계획안을 승인함. ‘Seaport Square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약 9만 3077m² 규모의 철도회사 소유 부지를 주상복합건물과 녹지공간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임. 30억 달러(약 3조 3765억 원)가 소요될 예정으로, 단일계획으로는 市 역사상 최대 규모임.
-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대상지역에 22개 주거용 건물과 상가, 사무실, 호텔, 공원 등이 조성됨. 특히 전체 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함. 이 프로젝트는 보행자를 중심에 둔 재개발계획안으로 해안가와 도심을 연결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건설함.

- 市는 재개발이 진행될 해안지역을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새로운 첨단산업업체, 생명공학 연구소 등을 유치할 계획임. 이들 기업과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직원을 위해 중·저가의 주거단지도 조성할 예정임.
- 2011년 하반기에 1단계 공사에 착수하며, 아파트단지와 혁신개발 보육센터가 먼저 지어질 예정임. 市는 최대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짓도록 할 계획임.

(http://archpaper.com/e-board_rev.asp?News_ID=4913)